

韓國 近代宗教의 三敎融合과 生命·靈性

김 낙 필(金洛必)

원광대 한국문화학과 교수

〈요약문〉

한국 근대의 新宗教運動은 유교적 사회질서가 몰락해가고 외부의 사상과 힘이 밀려올 때 대두되었다. 이들은 특히 빈곤과 질병, 사회적 억압에 시달린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노력하였다는 면에서 흔히 民衆宗教라고 불리어진다. 이들은 유교적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주장하고 자유·평등한 사회의 건설과 빈곤과 질병이 없는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였다. 또한 민중의 生命과 靈性の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교중 어느 하나 가지고는 불충분하며 三敎融合을 통해야만 全人的 生命과 영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데 특징이 있다. 新宗教 가운 德水雲崔濟愚(1824-1864)의 東學思想, 甌山姜一淳(1871-1909)의 甌山思想, 少太山朴重彬(1891-1943)의 圓佛敎 思想 등의 三大思想이 사회적 역사적 영향력의 측면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수운과 증산이 도교적 이상인격인 선인을 동경하고 평등하고 풍요로운 이상사회를 중시한 것은 도교가 지닌 생명지향의 정신을 중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사상에서 유교가 지향하는 도덕적 생명, 문화적

생명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 동안 유교지식인들에 의해 소홀히 되어왔던 도교적 수행론이나 사회사상에 눈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실천방법에 있어 民間道敎의이며 呪術의 方法에 치우친 면이 있다.

소태산은 기본적으로 수운과 증산의 역사인식과 사회개혁방향을 존중하면서도 불교에 주체를 두었다. 그는 精神開闢이란 모토를 제시하고 자각을 통한 진정한 정신개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교정신이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원불교사상에는 도교적인 생명지향의 정신이 융해되어 있으나 眞理觀 및 實踐修行論 등의 여러 영역에서 불법이 탁월하다고 믿고 이를 통한 영성의 자각을 근본으로 생각하였다.

근대종교의 선각자들은 생명·영성의 영역에서 성리학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도교와 불교에서 보완하려 하였다. 그러나 상이한 여러 가지 요소를 융합하는 경우 어떻게 각 사상의 본질적 요소를 손상시키지 없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는 문제로 남아있다.

주제어 : 생명, 영성, 신종교, 삼교융합.

목 차

- I. 머리말
- II. 三敎의 흐름과 三敎融畧 傾向의 대두
- III. 東學思想의 삼교융합과 생명의 중시
- IV. 龜山思想의 解冤相生
- V. 圓佛敎思想 - 佛法을 주체로 한 三敎融畧
- VI. 맺는 말

I. 머리말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이를 바르게 해석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찾으려는 의도 하에 세계관이나 문명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지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全一的 生命觀이나 求道·樂道의 삶을 제시하는 전통사상이 새롭게 검토되면서 재인식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모색과정에서 생명·영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영성이 지닌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논의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해진다. 이 글에서는 이 개념을 동아시아의 儒·佛·道 삼교 사상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먼저 생명에 관해서는 儒·道 兩家의 세계관의 기반이 되는 生哲學的 시각에 관련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유도 양가에서는 천지의 생성변화를 기의 작용에 의해 설명하면서 이를 유기체적 생명의 場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의 삶도 천지라는 대생명 현상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¹⁾ 이에 따라 양대사상에서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영역에서 생명의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유가에서는 우주적 생명의 성격을 도덕적 생명(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인의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창한다. 이에 비해 도가는 도덕적 제약을 넘어선 본원적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사상은 공통된 기반이 있기에 상보적으로 동아시아의 문화를 가꾸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인도적 사유를 배경으로 태동한 불교에서는 우주적 생명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영성을 문제 삼으며 영적 자각을 통한 해탈과 구

1) 方東美저, 정인재역, 『Chinese view of life』(역제: 중국인의 생철학), 탐구당, 1984, p.121.

원의 문제에 역점을 둔다. 이 글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적 특징을 영성 고양에 대한 관심으로 규정하며 사용하기로 한다.

이 글은 19세기 말 이후에 태동한 한국 近代宗教(보통 新宗教라고 부른다)를 중심으로 생명·영성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新宗教運動은 내부의 혼란과 외세의 충격등 사회적 격변기를 맞이하여 조선시대 지배적 이념이었던 성리학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그 새로운 대안으로 출현하였다. 이들은 특히 빈곤과 질병, 사회적 억압에 시달린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자생적으로 태동되었다는 면에서 흔히 民衆宗教라고 불리어진다.²⁾ 또한 민중의 생명과 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교중 어느 하나 가지고는 불충분하며 三教融合을 통해야만 전인적 생명과 영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데 특징이 있다.

新宗教가운데水雲崔濟愚(1824-1864)의 東學思想, 甌山姜一淳(1871-1909)의 甌山思想, 少太山 朴重彬(1891-1943)의 圓佛敎思想 등의 三大思想이 사회적 역사적 영향력의 측면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II. 三敎의 흐름과 三敎融合 경향의 대두

한국 전통사상의주류는 儒·佛·道 삼교로서 삼교는 고대국가의 성립시기에 들어와 한국 민족을 계몽시키고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작용

2) 유병덕, 『근현대 한국종교사연구』, 마당기획, 1999, p.145.

하였다. 삼교가 전래되기 이전 한국의 고유사상은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주의적인 경향을 지니는 등 전체적으로 도교적 사유와 친화력이 많다고 일컬어진다.

외부로부터 유·불·도 삼교가 들어오면서 삼교는 한국 사상과 함께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世界宗教의 유입을 통한 문화적 충격과 변용을 경험한 것이다.³⁾ 그러나 고유사상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삼교를 수용하는 밑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유교는 교육과 정치를 담당하고 사대부들에게 修己治人の 이상을 심어주었다.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문화적 업적을 창조함으로써 문화적 생명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것이 유교적 가치관의 핵심이다. 유교에서는 죽음 후에 영혼이 영속하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의 영속성보다는 개체는 소멸하되 천지는 영원하다는 전체생명의 영속성을 통해 天命을 달게 받는 태도를 존중하였다. 나아가 스스로 쌓은 덕행과 문화적 업적이 후대에 길이 빛나는 것이 나의 생명이 영속하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도교적 문화현상의 공통된 중심 테마는 신선이 되어 선계에서 逍遙自在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선과 선계에 대한 동경의식은 중국에서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한국인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가 중국에서 신선사상이 전래된 후 함께 융합된 것으로 보인다. 신선설화는 지식층의 문학작품뿐 아니라 민간의 설화에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였다. 불로 장생하고 造化力을 갖춘 신선이나 도사와 모든 차별과 원한이 해소된 평등한 仙界는 민중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모델로 작용해왔다.

유교는 본래 종교적 성격이 약했으며 도교는 문화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긴 했으나 한국에서 도교교단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비

3) 尹以欽, 『韓國宗教研究』, 집문당, 1986, P.34.

해 불교는 민속을 포괄하면서 종교교단으로 성장하여 민중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나아가 깨달음과 자비의 가르침을 펼침으로써 한국인에게 보편적 세계종교로서의 영향을 발휘하였다.

한국에는 삼국시대 무렵부터 대승불교의 이념이 전래되어 토착화함으로써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자비의 이타행을 겸하는 菩薩道, 및 갈등하는 현실세계 속에서 이상적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彌勒淨土思想이 주로 유포되었다. 이와 함께 깊은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철저한 禪修行의 전통이 한국문화에 접목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유·불·도 삼교가 전래된 이후의 한국사상사는 삼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유사상을 토대로 하여 수용된 삼교가 어울려져 한국인의 삶을 이끌고 전통문화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유·불·도 삼교가 추구하는 이상이 본연의 모습 그대로 역사 속에 실현된 것은 아니며 굴절과 부침을 거듭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전통사상 속에 깃들어 있는 부정적인 이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삼교에는 공통된 면도 있지만 각각 소홀히 하기 어려운 독자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측면이 있어 삼교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융합할 것인가가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삼교 간에는 상호간의 사상적 교섭이 활발하여 한편으로 자가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다른 사상을 배척하는 갈등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을 변화시키는 상호 융합의 현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한말 무렵 태동한 東學思想, 龜山思想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삼교융합을 시도한 흔적이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고려시대와 같이 삼교간의 공존 분위기가 형성된 경우도 있고 성리학의 경우처럼 내용적으로 삼교를 융합한 측면이 나타나므로 융합과 관련된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경우는 삼교가 일정한 역할분담을 통

한 상호 공존의 측면이 강하며 사상적으로 융합하려는 시도는 발견하기 어렵다. 성리학의 경우도 내용적으로는 도·불을 융합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상을 명백히 비판, 배척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삼교융합 움직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불교의 경우 삼교융합을 명시적으로 지향하는 움직임은 조선조에 이르러 단편적이거나 나타난다. 조선초기 涵虛의 『儒釋質疑論』이나 중기 休靜의 『三家龜鑑』이 그것이다. 『유석질의론』은 어느 정도 삼교간의 역할분담론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으며⁴⁾ 삼가귀감은 마음의 원리와 수행법을 중심으로 하여 삼교간의 상통성을 지적하고 있다.⁵⁾ 이러한 회통 움직임은 불교 내부의 다양한 종파의 사상을 회통시키려는 圓融會通의 경향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통 움직임이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된 것 같지는 않으며 오히려 점차 看話禪 제일주의로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간화선은 본래 비판정신을 생명으로 하여 태동, 발전되었으나 후일 이념적으로 굳어지면서 비판을 거부하고 오히려 독존을 주장하는 경향으로 고착된 인상을 준다.

중국의 경우 삼교간의 사상적 융합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사상은 도교 사상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조 중기이후의 도교사상에서 그 뚜렷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 수련도교의 영역에서 유교적 인륜의 실천과 도교적 氣의 수련, 및 불교적 심성수양을 종합하려는 경향을 지니는 것이 그 예이다. 수련도교의 인물인 北窓 鄭礪(1506-1549)에 관해 鄭光漢이 찬한 「北窓先生墓記」에 의하면 동생인 古玉이 항상 “공은 타고난 바탕이 탁월하여 삼교에 박통하였다. 수양하고 섭생함은 도에 가깝고 해오함은 禪에 가까우며 인륜강상에 바탕하여 떳떳이 행함은 한결같이 우리 유학에 바탕 하였다”라고⁶⁾ 말했다 한

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한울아카데미, 1997, p.141.

5) 같은 책, p.146.

다. 즉 도교적 수양과 불교적 깨달음, 유교적 인륜의 실행이라는 삼자를 조화시킨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표현대로라면 복창은 동양의 전통상에서 하나의 이상이었던 유·불·선을 조화한 인격에 근접한 인물이었다는 것 같다.⁷⁾ 송대 이후 삼교합일을 지향했던 內丹 제파의 이상이 바로 유교적 인륜의 실천과 불교적 깨달음, 도교적 기의 수련을 종합하려는 것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삼교융합의 전통은 조선 후기의 민간도교에도 계승 발전된다. 민간도교의 경우는 삼교의 신앙이 거부감 없이 공존하며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삼교의 수행법을 회통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조 사상계를 대표한 성리학, 선불교, 도교사상의 셋을 비교해보면 각각 나름대로 자가의 주체를 세우면서도 삼교를 융합하는 경향을 지녔다. 그러나 역시 삼교의 본질적이며 중요한 요소를 종합하려는 적극적 태도는 도교사상의 경우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도교가 지닌 특유의 사상적 융합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융합적 경향은 그 후 구한말 이후 출현한 수운, 증산 등의 신종교운동에서 다시 부각된다. 수운이나 증산은 그 동안 한국사상의 저변에 흐르고 있던 도교적 사유를 중시하며 이에 바탕한 삼교융합을 시도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수련도교는 은둔적 지식층들을 중심으로 전승되었으며 역사와 문화의 전면에 나서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이었던 성리학도 성립과정에서 삼교융합적 면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불교와 도교를 이단으로 배척한 만큼 융합의 정신이 불충분한 면이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삼교융합의 정신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대중적 과급력이 상당한 것은 역시 신종교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6) “公生而靈異 博通三教 其修攝似道 解悟類禪 倫常行誼 一本吾儒”, 鄭樂勤撰, 『溫城世稿』, 우문당본, 1962.

7) 줄고, 『北窓 鄭謙의 內丹思想』, 『도교문화연구』 제 19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3, p.80. 참조.

III. 東學思想의 삼교융합과 생명의 중시

신종교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동학의 창시자 수운은 전통적인 유·불·도(道는 흔히 仙이라고도 불리어진다)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지니면서도 이를 새롭게 살려 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 시대는 佛法이나 儒法이나 기타 모든 묵은 것으로는 도저히 새 인생을 거느려 나갈 수 없는 시대이지요. 다만 요할 것은 죽은 송장 속에서 새로 산 혼을 불러 일으킬만한 無極之運을 과지하고 新天新地新人을 개벽하여야 하지요.”⁸⁾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동학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한 李敦化가 그 가르침에 관해 “吾道는 원래 유도 아니며 불도 아니며 선도 아니니라. 그러나 吾道는 유·불·선의 합일이니라. 天道는 유불선이 아니로되 유불선은 천도의 일부분이니라. 유의 윤리와 불의 覺性과 선의 養氣는 인성의 자연한 품부이며 천도의 고유한 부분이니 吾道는 그 無極大源을 잡은 자니라.”⁹⁾라 한 바와 같이, 동학사상은 내용적으로는 유·불·도의 융합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동학에서 삼교융합을 주창하긴 했지만 불교사상을 수용한 측면은 비교적 소략하며 주로 유교적 기반위에 도교적 시각을 재인식하여 융합하는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유·불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했던 도교적 요소를 부각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至氣一元論으로서 氣를 중심한 세계관을 중시한 것이다. 수운은 한국의 고유한 전통사상을 계승하여 天을 최고의 존재로 간주하면서도 이를 한울님이라 하여 인격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동시에 氣論的 세계관에 바탕하여 한울님을 至氣라 부르고 있다. 그는 한울님을 天主라

8)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제1편, 경인문화사, 1982, p.34.

9) 같은 책, p.33.

고도 부르는데 천주를 신앙하는 내용을 지닌 21자의 주문가운데¹⁰⁾ “至氣
 今至願爲大降”에 관해 수운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至’라는 것은 지극한 데에 이르는 것이요 ‘氣’라는 것은 虛靈이 蒼蒼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아니 함이 없고 모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는 데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면서도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混元한 한 덩어리 기운이나라. 그리고 ‘今至’라는 것은 도에 들어 처음으로 至氣에 접하게 됨을 안다는 뜻이다. ‘願爲’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것이요 ‘大降’이라는 것은 氣化를 원하는 것이니라”¹¹⁾

위에서는 氣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無爲而化로 만물을 운행시키는 존재로 제시되어 있다. 이 至氣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氣化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서도 기가 역동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여기서의 氣란 본체기운, 즉 모든 생성을 가능케 하는 한울님의 작용과 생명력을 뜻함과 동시에 도덕적으로는 正氣의 기운을 뜻한다.¹²⁾ 氣化를 원한다는 것은 곧 한울님의 기운과 합일하여 바른 기운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도덕적 생명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理 중심으로 설명해왔던 성리학적 시각과는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수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무병장수하는 이상세계를 지상에 건설할 것을 지향하였다. 특히 그의 歌辭에는 불사약, 지상신선, 선약 등의 표현이 흔히 등장하고 있다. 동학의 경전인 『東經大全』에 “봄 오는 소식을 응당히 알 수 있나니 지상신선의 소식이 가까워오네.”¹³⁾라 한 것이라든지 “入道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 되어 無

10) “待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의 21자.

11) 『東經大全』, 論學文의 내용을 현대적 표현으로 바꾼 것임.

12) 柳炳德 편저, 『東學·天道教』, 시인사, 1987, p.68.

爲而化 될 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니냐”¹⁴⁾ 등의 언급은 그 예이다.

전통적 개념의 신선은 심신수련을 완성하고 선계에 승천하여 장생불사하는 인물이지만 수운의 신선은 지상에서 바른 마음을 지녀 한울님과 하나가 되어 무병장수하는 데에 역점이 있는 것 같다. 현세초월적 신선 사상을 현세중심적으로 전환시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⁵⁾

수운은 과거를 先天으로, 돌아올 미래를 後天이라고 부르고 後天開闢을 통해 실현되는 이상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선계의 이미지를 지상에 투영한 의미가 강하다. 수운이 대망하는 후천개벽의 새 사회는 내세가 아닌 현세이며 侍天主 신앙에 의한 도덕적 규범이 확립된 사회와 도덕적 인격의 군자들이 同歸一體함으로써 이룩되는 공동체적 사회와 또 廣濟蒼生, 輔國安民이 실현된 사회, 즉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이다.¹⁶⁾

셋째 실천수행의 중요한 요체로 제시된 守心正氣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운은 전통적인 유교의 인의예지의 덕목으로는 불충분하고 마음을 닦고 氣를 바르게 하는 수심정기가 필요함을 밝힌다. “仁義禮智는 先聖之所教요 守心正氣는 惟我之所定야”¹⁷⁾라고 하여 수심정기가 수운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天人合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실천으로 불충분하고 어떤 종교적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적 체험이란 “至氣今至願爲大降”과 같이 우주적 至氣와 하나가 되는 氣化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다음의 내용도 이를 말해준다.

13) “風來消息應有知 地上神仙聞爲近” 『東經大全』, 부록 詩, 天道教中央總部刊, 『天道教經典』, 1982, p.91.
 14) 『龍潭遺詞』, 教訓歌. 같은 책, p.130.
 15) 尹錫山, 「東學에 나타난 道教的 要素」,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아세아문화사, p.343.
 16) 柳炳德 편, 앞의 책, p.556.
 17) 『東經大全』, 修德文.

“한울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찌하여 선악이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락의 이치를 정했으나, 그러나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겨짐으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에 어기나니, 이것이 성쇠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18)

이에 의거하면 바른 마음과 기운을 함양할 때 천인합일의 인격을 성취함을 알 수 있다. 성리학에서는 仁義의 실현을 통한 인륜의 완성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데 수운은 여기에 바른 기운의 측면을 첨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가에서는 인의의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바른 기운, 즉 호연지기를 중시한바 있다. 수운의 수심정기의 내용에도 이러한 측면이 배제된 것은 아니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첨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⁹⁾ 이는 일종의 강령체함과 같이 나와 우주적 원기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심정기는 정신적 수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의 함양도 중요하다고 보는 면에서 수련도교의 관점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수련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氣化라고 표현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수련도교와 같은 煉精化氣, 煉氣化神, 煉神還虛의 체계가 아니라 신앙에 바탕한 바른 마음과 주문수련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수운은 도덕적 생명을 중시하고 도덕적 생명의 확산을 통한 도덕적 이상사회를 모토로 하는 유교적(性

18) “曰天心卽人心則 何有善惡也 曰命其人 貴賤之殊 定其人 苦樂之理 然而君子之德 氣有正而心有定故 與天地合其德 小人之德 氣不正而心有移 故 與天地違其命 此非盛衰之理耶”, 『東經大全』, 布德文.

19) 李聖田, 「東學의 修心正氣에 관한 일고찰」, 『道敎文化研究』 27집, 韓國道敎文化學會, 2007, p.15.

理學的) 입장에 만족하지 않고 도교적 관점을 적극 받아들인 것을 특징으로 찾아볼 수 있다. 빈곤과 질병이 없고 부당한 차별이 없는 이상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우주적 생명인 근원적 지기와 하나가 될 것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내세나 초월적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현세중심적인 낙원세계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 등은 여전히 유교적 입장이 살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수운은 「座箴」에서는 수심정기를 뒷받침하는 실천수행의 요법으로서 誠·敬·信 세 가지 덕목을 제시한다.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誠·敬·信 석자니라. 이 속에서 공부하여 터득한 뒤에라야 마침내 알 것이니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딘 것을 두려워하라”²⁰⁾한다.

성·경·신은 성리학에서 중시하던 덕목들인데 수운이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성리학의 경우 본성에 대한 확신과 주체적 자각에 바탕한 실천을 중시한다. 특히 성과 경은 성리학적 修己治人の 공부, 즉 聖學의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敬공부가 動靜과 始終을 일관하는 덕목이라면 誠은 천인합일된 단계의 의미를 지닌다. 수운은 신앙에 바탕하여 이러한 수행요목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신은 한울님을 분명히 믿는 것을 뜻한다. 믿기 때문에 한울님에 대한 정성도 지극하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경이다. 한울님에 대한 믿음이 충실해지면 성과 경이 저절로 따르기 때문이다.²¹⁾ 이와 같은 재해석은 자신의 신앙적 믿음에 바

20)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這裏做工夫 透後方可知 不怕塵念起 惟恐覺來遲” 『東經大全』 부록 「座箴」.

21) “信曰信 如斯修之 乃成其誠 誠與信兮 其則不遠 人言以成 先信後誠 吾今明諭 豈非信言 敬以誠之 無違訓辭” 『東經大全』 「修德文」, p.203.

탕한 것이지만 성·경·신이라는 덕목을 존중했다는 것 자체가 유교적 실천론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하며 그의 사상에 끼친 유교적 영향은 매우 광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교에 대한 적극적 수용입장과 비교 할 때 불교에 대한 수용입장이나 그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지가 않다. 아마 그동안 지배적 사조였던 유교의 극복과 계승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탓으로 보인다.

IV. 甌山思想의 解冤相生

동학사상은 강한 사회개혁정신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회변혁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감을 목도한 증산은 보다 신비적, 주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종교적 상징화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증산은 미래의 질서를 정한다는 상징적 의식을 다양하게 거행하고 이를 天地公事라고 불렀다.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이념으로서 解冤, 相生, 報恩 등을 들고 있는 것에서 증산이 우주적 생명질서와 인간 생명의 상호관계에 깊은 관심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수운이 인의예지의 도덕적 실천과 수심정기를 통한 우주적 생명의 체득을 주창하였다면 증산은 천지공사를 통해 인간과 신명계의 합일을 통해 인간의 생명이 온전히 실현되고 이에 따라 영성도 고양될 것이라고 믿었다. 증산사상에도 신종교 일반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인 삼교융합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수운의 동학사상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경향으로서 증산사상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반영되어 있다. 증산은 삼교의 특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하루는 公事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라하니라. ‘佛之形體, 仙之造化, 儒之凡節.’”²²⁾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견해가 있다.

“불교의 이념은 형체 즉 고요히 앉아서 禪定을 통해 우리의 자아 속에 숨겨있는 영생의 빛이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밝히는데 있으며, 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仙敎(기독교, 동학도 포함)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향해 일심정성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여 기쁨과 평안을 느끼며 모든 일을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조화를 지어냅니다. 유교가 맡고 있는 전문분야는 인간성을 해부하여 영원한 天道에 바탕을 둔 도덕으로 예의범절의 폭대를 세우는 것입니다.”²³⁾

위의 풀이 가운데 선도에 기독교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증산이 文明神 統一公事에서 선도와 기독교를 구별한 것을 고려하면 위의 언급은 주로 도교적 사유로 국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²⁴⁾ 선도를 도교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경우 造化는 도가 지닌 無爲而化의 자연적 조화와 신선이 지닌 자유자재한 권능을 포함한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위 언급은 무위이화의 造化, 인륜의 범절, 불교의 마음공부를 종합한 사상이 요청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증산은 천지공사에서 유·불·선이 종합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22) 李祥昊, 『大巡典經』, 4장 142절, 甌山敎本部, 1975. p.280.

23) 안경전, 『증산도의 진리』, 대원출판사, 1984, pp.183-184.

24) 김홍철은 “이 말은 곧 천상의 절대무상의 위치에 있는 상제께서 형세에 나타날 때는 불의 형체, 곧 한국의 불교신앙으로서의 미륵의 형체로 체현하고 그 조화는 천지공사에서 보는 것처럼 선도적 차원을 표징하는 것이며 그 윤리적 측면은 유교적 형태를 표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김홍철, 『증산교사상연구』, 원광대출판국, 2000, p.222.

“仙道와 佛道와 儒道와 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은 선도의 宗長이 되고, 震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朱晦庵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利馬竇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진액을 거두며 모든 道統神과 文明神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²⁵⁾

최수운, 진묵, 주희를 선도, 불도, 유도의 종장으로 보는 것은 주로 한국 사상사에서의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산사상에서는 삼교를 골고루 수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선도를 높이 평가하고 이에 비중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壬辰 난리에 靖亂의 책임을 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 일에 지나지 못하고 震默이 맡았으면 석 달이 넘지 않고 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 달에 끝렸으리라 하니 이는 선도와 불도와 유도의 법술이 서로 다름을 이름이라 옛적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만 따로 쓸지라도 능히 난국을 바로 잡을 수 있었거니와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리라”²⁶⁾

위의 언급에서 보이는 선도 중시의 관점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며 증산사상 전반에 나타난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증산사상에서는 신선을 최고의 이상적 존재로 내세우고 지상선경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한다. 증산은 스스로를 신선이라고 밝힌다.

“하루는 宗徒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의 얼굴을 잘 익혀두라. 후일에 내가

25) 『대순전경』, 5장 9절.

26) 『대순전경』, 5장 3절, p.297.

出世할 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 또 가라사대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을 전설로만 들어왔고 본 사람이 없었으나,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²⁷⁾

증산은 스스로의 능력을 자유자재한 권능, 또는 造化力을 지닌 경지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증산을 玉皇上帝의 화현으로 신앙하는 관점에 바탕한 것이지만 수련, 성도하여 얻은 결과라는 시각에서 보면 전통적인 신선개념과 일맥 상통된다고 말할 수 있다. 도교적 신선이 유교의 성인과 불교의 부처와 구별되는 특징이 조화력과 불로장생임을 감안하면²⁸⁾ 증산이 제시하는 이상인격은 유·불·도 삼교중 도교적 신선에 가장 근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증산은 이상사회의 성격을 仙境으로 규정한다.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神道로써 다스리면 玄妙不測한 공을 거두나니 이것이 無爲而化라. 이제 神道를 골라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무궁한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度數에 돌아당는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²⁹⁾

“만고의 冤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선경을 열고 造化政府를 세워 하염없이 다스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화하며 세상을 고치리라. … 영원히 안정을 얻게 함이 곧 선경을 건설하는 첫 걸음이니라.”³⁰⁾

이러한 이상사회의 이념이 『太平經』 이래 중국의 魏晉 南北朝 시대에 활약했던 민간도교 교파들의 천년왕국설적 주장과 상통한다는 견해

27) 『대순전경』, 9장 7절. p.405.

28) 줄지, 『朝鮮時代의 內丹思想』, 한길사, 2000, p.267.

29) 『대순전경』, 5장 3절. p.297.

30) 『대순전경』, 5장 4절, p.298.

가³¹⁾ 있다. 신선이 산다는 선계에 대한 동경은 도교의 다양한 유파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증산이 밝힌 선경은 특히 『태평경』에서 밝힌 太平世界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통되는 면이 있다.

『태평경』이 이상으로 삼는 사회는 신선, 眞人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로서 도덕성이 실현되고 무병장수하는 사회이다. 『태평경』에서는 이러한 사회, 및 그러한 사회를 이끌 진인의 도래를 종교적 예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³²⁾ 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바람과 희망이 투영되고 있다. 신선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안과 갈등이 첨예화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동경하고 그리던 세계이다. 이러한 청사진은 구한말에 고난에 처한 민중들에게 희망을 제시한 後天世界의 모습과 기본적으로 상통된다. 후천세계의 구체적 내용에는 시대적 환경이 반영되어 과학문명의 개화라던가 자유·평등한 사회질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점은 태평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천지인이 조화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생명을 마음껏 발현한다는 도교적 유토피아가 기본적 틀을 형성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증산사상에서는 도교적 신관을 상당한 정도 수용하였다. 증산사상에서는 우주의 궁극적 존재를 옥황상제라 칭하고 증산을 인간으로 화현한 상제로 본다. 옥황상제란 호칭은 중국도교에서 주로 송대 이후 널리 유포된 명칭으로서 중국 고대의 帝, 또는 上帝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외에도 증산사상에서는 北斗七星, 關帝信仰, 竈王信仰 등 민간도교의 다양한 신들이 존중되고 있다. 이렇게 一神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多神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역시 도교적 신관과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인간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죽어서 신으로 받들어지는 과정 역시 도교

31) 鄭在書, 「韓國民間道敎의 계통 및 특성」, 『한국도교문화의 위상』, 아세아 문화사, 1993, p. 206.

32) 王明, 『太平經合校』, 中華書局, 1978, p.90.

적 신론의 체계와 유사하다. 도교적 사유에서는 수련과정을 거쳐 도달한 신선과 높은 위계의 신들간의 간격이 모호하며 서로 동일시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증산사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하면 증산사상의 신론이 도교의 신론에 사상적 연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외면적으로 유사한 구조라고 해도 내용상의 차이는 고려해야 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증산사상에서 최고신인 옥황상제의 두드러진 역할을 강조하는 점일 것이다. 역사를 주재하며 직접 인간으로 화현하여 천지공사를 행한다는 관점이 이것이다. 중국의 최고신은 일반적으로 창조의 개념이 희박할 뿐 아니라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무위자연한 이법 자체의 의인화된 성격이 강하다. 대신 인간에게는 많은 다신들이 더 친숙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최고신이 직접 많은 신들을 부려 후천개벽을 완성한다는 관점은 이러한 전통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증산사상에서 수행의 방법으로서 민간도교적 주술을 중시하는 점이다. 증산은 제자들에게 도교적 수행법과 일맥 상통하는 胎坐法으로 수련을 시킨 일도 있다고 한다.

“매양 중도들을 태좌법으로 늘여 앉히시고 조금도 움직이지 말라고 명하신 뒤에 움직이는 자가 있으면 비록 벽을 향하여 누워서 주무실 때에도 문득 꾸짖으시니 그 밝으심이 자고 깨심과 보고 안 보심과 멀고 가까움이 없으시니라.”³³⁾

태좌법은 도교의 태식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교적 영향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증산이 특히 강조한 수행은 太乙呪의 수련이다.

33) 『대순전경』, 2장 127절.

“하루는 중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는 잠 적게 자고 太乙呪를 많이 읽으라. 하늘 으뜸가는 임금이니, 5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³⁴⁾

이 태을주는 우주조화의 바탕기운을 깔고 있는 주문으로서 모든 영적 고통과 불순한 사고와 병마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救苦天尊의 대원력을 가진 주문이라 한다.³⁵⁾ 太乙天上元君이라는 신격 자체가 도교적 신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태을신의 신격이 어떠한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 민간도교에서 太乙救苦天尊이라는 명칭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다. 『覺世新編八鑑常目』이란 민간도교의 경전 가운데 玉皇大天尊玄穹高上帝(玉皇上帝), 尋聲赴感太乙救苦天尊,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經의 본존), 玉虛師相玄天上帝 金闕化身天尊(북극성) 등 네 가지 도교적 신격에 대한 신앙이 보인다.³⁶⁾ 사위 안에 옥황상제와 북극성이 따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태을구고천존은 이와 다른 독립된 신격으로 보인다. 태을구고천존은 尋聲赴感太乙救苦天尊이란 명칭이 암시하듯 중생들이 부르는 소리에 응하여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해준다고 믿어졌던 신인 것 같다. 태을구고천존과 태을천상원군의 관계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태을천상원군이 도교적 신격인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태을주 외에도 증산이 사용한 주문은 雲長呪, 布斗呪, 七星呪 등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道藏』에 실린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되는 것도 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증산교는 仙(道)을 주체로 한 통합종교이다. 증

34) 『대순전경』, 7장 18절.

35) 증산도총무처편, 『증산도성전』, 1988, pp.244-245. 김홍철, 『증산도사상연구』, 원광대출판국, 2000, p 214에서 재인용.

36) 규장각본, 『覺世新編八鑑常目』 권 4, 持頌鑑 제2.

산사상과 증산교 각 파의 모든 제도, 의례 속에는 많은 도교적 요소들이 발견되고, 증산사상의 전체적 흐름은 도교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증산교는 仙을 주체로 한 통합종교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⁷⁾라고 한 언급이 증산사상의 특징을 잘 압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동학과 마찬가지로 증산사상 역시 삼교융합을 중시하지만 불교적 요소의 수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공부의 중시라는 동양의 일반적 경향 외에 彌勒佛信仰의 수용 정도가 나타난다. 대신 도교적 요소의 수용이 두드러지며 이 측면은 동학사상보다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을 준다.

여기서는 증산사상에서 유교사상을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논의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동학사상과 같은 경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증산사상 역시 仁義禮智를 존중하고 忠·孝·烈의 가치를 인정하는 등³⁸⁾ 전통적 유교적 덕목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며 도교적 측면을 주체로 삼아야 개인적으로는 온전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V. 圓佛敎思想 - 佛法을 주체로 한 三敎融合

원불교를 창건한 少太山 朴重彬은 교단창립의 목적이 거시적인 문명

37) 金洪喆, 「韓國新宗教에 나타난 道敎思想 - 甌山敎를 중심으로」,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아세아문화사, 1989, pp.311-325.

38) 『대순전경』, 4장 144절, p. 280. 및 제4장 128, p.272.

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동기를 밝히고 이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개벽하자”는 표어로 압축하였다. 이는 물질문명(또는 과학문명)을 선용할 수 있도록 정신의 주체를 세우고 정신문명을 발전시키는 과업으로서 소태산은 이를 정심개벽이라 부르고 있다.

정신문명의 주체를 세우고 물질문명을 수용한다는 사상은 개화기의 東道西器論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서양문물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동양의 도덕의 주체 하에 서양 기술을 도입하자는 것이 동도서기론이었다. 즉 동양의 道를 바탕으로 서양의 器를 채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때 서양의 器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과학기술이었으나 후에는 서양의 정치 사회 제도도 포함시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소태산은 도에 관해 주로 종교와 도덕에 관련된 동양적 정신문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태산은 물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본연을 정신이라 부르고 정신에 관해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³⁹⁾ 말한다. 미혹한 마음은 어리석음과 집착이라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이를 넘어선 밝음과 해탈의 경지가 본성이며 정신의 영역이다. 정신개벽은 각자 각자가 본연의 마음인 정신의 주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는 제반의 노력이 정신문명의 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소태산은 본연의 마음인 정신을 회복하고 충분히 회복했을 때 이를 자유라고 표현한 바 있다. 선의 정의를 내릴 때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정신)을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얻어나가는 공부라고 말한 것이⁴⁰⁾ 그것이다. 따라서 그의 개교동기는 정신개벽을 통한 자유의 확산이라 압축할 수 있다.

그는 나아가 정신개벽을 달성하기 위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춘 새로운 종교의 필요하다고 생각하

39) 정진, 교의편, 삼학.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95, p.46.

40) 정진, 수행편, 무시선법. 같은 책, p.72.

였다. 종교가 문명창조의 핵심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새로운 대문명세계에서는 이에 걸 맞는 열린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수운이나 증산이 삼교융합을 주창하면서도 주로 유·도 통합에 치중한 면이 많은 반면 소태산은 불교에 주체를 두고 삼교융합을 시도하였다. 그는 수운과 증산의 시대인식에 공감하고 그들이 행한 선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자임한 사명이 다르다고 생각하였다.⁴¹⁾ 그는 밝은 문명사회의 도래를 전망하면서 그 시대에는 불교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요청될 것이라고 믿었다.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중생에게 慧福의 문로를 열어주려면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⁴²⁾ 인식에서이다. 이는 불교가 지닌 중요한 특성 즉 자각을 통한 영성 고양의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소태산은 일차적으로 불교내부의 제 종파의 회통, 융합을 시도하고 이차적으로 삼교융합을 도모하였다. 소태산은 性理學, 禪佛敎, 및 修鍊道敎 등 당시 한국사상에서의 중요한 요소를 종합하려 하였으나 동학과 증산사상에서 두드러졌던 민간도교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점이 눈에 띈다. 대신 불교의 생활화·대중화·시대화를 지향한 까닭에 人道와 현세를 중시하는 유교적 요소의 수용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삼교의 중요한 요소를 융합하려는 경우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소태산은 한편으로는 삼교의 진리관의 궁극적 회통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특징적 요소는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해결하려 하였다. 삼교융합에서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응답하려는 점에서 이전의 사상보다 진일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먼저 유가의 太極, 불교의 法身佛, 도가의 道 등이 궁극적으로 상통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⁴³⁾ 삼교의 특징적인 면을 융합

41) 『대종경』 변이품, 34, 같은 책, p.254.

42) 『대종경』 서품 15, 같은 책, p.102.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佛家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쳐 轉迷開悟의 길을 주로 밝히셨고, 儒家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아서 三綱·五倫과 仁·義·禮·智를 가르쳐 修齊治平의 길을 주로 밝히셨으며, 仙家에서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서 養性하는 방법을 가르쳐 淸淨無爲의 길을 주로 밝히셨나니, 이 세 가지 길이 그 주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儒·佛·仙 삼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하여 왔지마는,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修養·研究·取捨의 一圓化와 또는 靈肉雙全·理事並行 등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 … 하략”⁴³⁾

그는 불교적 깨달음의 수행, 유교적 인륜의 실천, 도교적 淸淨無爲의 양생을 종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성의 자각(佛)과 도덕적 생명의 확충(儒), 우주적 생명과의 합일(道)이라는 특징적인 세 가지 영역에 대해 각각 그 필요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에 소태산의 후계자인 鼎山 宋奎(1900-1962)가 제시한 三同倫理는 소태산이 제시한 삼교융합의 정신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이를 통해 정치적 이념이나 종족간의 대립, 종교간의 갈등 등을 극복하는 보편윤리를 제시하려 하였다. 同源道理, 同氣連契, 同拓事業의 세 가지로 구성된 삼동윤리는 그가 1961년에 발표하였는데 이상사회인 大同社會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실천요목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첫째 동원도리에 관해 정산은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43) 『대중경』 교의품 3, 같은 책, p.112.

44) 『대중경』 교의품 1, 같은 책, p.126.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 동원도리의 핵심임을 밝힌다.⁴⁵⁾ 동원도리는 특히 상징을 넘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적 정신을 극대화하여 종교를 회통시키는 원리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동기연계로서 모든 존재는 한 기운의 산물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⁴⁶⁾ 그러나 모든 존재가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적 세계관에 바탕하여 개개인의 평등, 나아가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시각은 역시 도교적 정신에서 가장 현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큰 유기체적 생명으로 보며 인간과 자연의 근본적 소통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시각과도 연결되어 있다.

셋째 동척사업으로서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라고 한다.⁴⁷⁾ 유교적 중정의 정신은 인간 삶의 현장을 중시하는 관점에 바탕하여 문명의 어느 한 요소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막는 균형 감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중정의 정신을 극대화하여 이데오로기의 대립을 비롯하여 종교와 과학, 종교와 정치 등 다양한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가는 원리로 삼자는 것이다.

그런데 삼교를 융합하려는 경우 특히 세계관의 측면에서 心을 중심한 불교적 관점과 氣를 중심한 세계관의 관계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가 문제로 부각된다. 소태산은 궁극적 진리로 제시하는 一圓의 진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氣論의 설명을 수용한 면이 있으나 명시적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되어 마음 수련과 기의 수련을 조화시키는 문제도 남

45)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5, 같은 책, p. 989.

46)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6, 같은 책, p. 990.

47)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7, 같은 책, p. 991.

아있다. 소태산은 이에 관해 본성의 자각을 통한 해탈과 자유를 근본으로 삼되 기의 수련을 겸전하는 관점을 시사한 바 있다. 下丹田을 관하여 몸에서의 水昇火降과 마음에서의 息妄顯眞을 이울러 지향하는 丹田住禪法을 제시한⁴⁸⁾ 것이 그것이다.

후에 정산은 소태산의 사상을 해석학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靈氣質의 인간관을 제시한 바 있다. 정산은 靈氣質에 관해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요소로 보고 “靈은 우주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 氣는 우주만유의 生氣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 質은 우주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뜻한다”⁴⁹⁾고 규정한다. 인간의 경우 이 세 가지 가운데 영이 기와 질을 주재한다는 관점을 밝혀 영을 가장 근원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를 중심한 생성론적 관점을 받아들이되 心の 靈覺性을 근원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불교에 주체를 두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소태산은 정신개벽이란 모토하에 불교적 맥락에서 정신을 규정하고 그 회복을 통한 실존적 자유의 확산을 정신개벽의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나아가 한편 소태산은 정신의 회복과 자유의 확산이 개인적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수·체·치·평의 무대인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정의실현을 중시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은 삼교융합을 지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유·불 융합을 중시하고 도교의 수용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느낌을 주고 있다.

48) 『정진』 수행편, 같은 책, p.69.

49)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4. 같은 책, p.822.

VI. 맺는 말

한국 근대의 신종교운동은 유교적 사회질서가 몰락해가고 외부의 사상과 힘이 밀려올 때 대두되었다. 이들은 유교적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주장하고 자유·평등한 사회의 건설과 빈곤과 질병이 없는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였다.

수운과 증산이 도교적 이상인격과 이상사회를 중시한 것은 도교가 지닌 생명지향의 정신을 중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인사들이 두 사상에 주목하는 것도⁵⁰⁾ 이 때문이다. 물론 두 사상에서 유교가 지향하는 도덕적 생명, 문화적 생명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동안 소홀히 되어왔던 도교적 수행론이나 사회사상에 눈을 돌려 새로운 화두로 삼은 것은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실천방법에 있어 민간도교적이며 주술적 방법에 치우침으로써 생명 지향의 의미가 단순한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근대의 도교적 지식인인 손秉薰(1847-1926)이 精神哲學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도교수련에 바탕해야 진정한 자유와 불멸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 견해와 비교하면 그들의 도교사상 수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소태산은 기본적으로 수운과 증산의 역사인식과 사회개혁방향을 존중하면서도 불교에 주체를 두었다. 그는 정신개벽이란 모토를 제시하고 자각을 통한 진정한 정신개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교정신이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원불교사상에는 수운과 증산의 생명지향의 정신이 융해되어 있으나 진리관 및 실천수행론 등의 여러 영역에서 불법이 탁월하다고 믿고 이를 통한 영성의 자각을 근본으로 생각하였다.

50) 이경숙·박재순·차옥송 공저, 『韓國生命思想의 뿌리』, 梨花女大出版部, 2001, p.160.

근대종교의 선각자들은 생명·영성의 영역에서 성리학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도교와 불교에서 보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성리학이 제시하는 도덕적 생명, 문화적 생명의 의미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근본정신을 살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상이한 여러 가지 요소를 융합하는 경우 어떻게 각 사상의 본질적 요소를 손상시킴이 없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는 문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구체적 역사적 현실에서 융합의 정신을 바람직하게 실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고문헌〉

- 李祥昊, 『大巡典經』, 甌山敎本部, 1975.
-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95.
- 『천도교경전』, 천도교중앙총부, 1993.
- 이경숙·박재순·차옥송 공저, 『韓國生命思想의 뿌리』, 이화여대출판부, 2001.
- 유병덕, 『근현대 한국종교사연구??』, 마당기획, 1999.
- 尹以欽, 『韓國宗教研究I』, 집문당, 1986.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한울아카데미, 1997.
- 李敦化저 『天道敎創建史』, 경인문화사, 1982.
- 柳炳德 편저, 『東學·天道敎』, 시인사, 1987.
- 김홍철, 『증산교사상연구』, 원광대출판국, 2000.
- 김낙필, 『朝鮮時代의 內丹思想』, 한길사, 2000.
- 박기민, 『한국신흥종교연구』, 혜림사, 1985.
-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가톨릭신문사, 1988.
- 노길명,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빅벨출판사, 1988.
- 황선명, 『민중종교운동사』, 종로서적, 1980.
- 한국종교학회, 『한국신흥종교실태조사보고서』, 1985.
- 김종서·박승길·김홍철 공저, 『한국신흥종교 사상의 연구』, 집문당, 1989.
- 우리사상연구소편,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기』, 철학과 현실사, 2000.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한울아카데미, 1997.
- 홍승표, 『동양사상과 탈현대』, 예문서원, 2005.

Uniting three religions and problems of life and spirituality in modern korean religions

Kim, Nak-Pil
Prof. Wonkwang Univ.

〈ABSTRACT〉

New religious movement of modern korea appeared when confucian order gradually fell and outer power and thoughts rushed into modern korea. These religions are often called as popular religion as they endeavored to suggest a hopeful vision for popular people suffered from poverty and disease. They emphasized reformation of confucian order and intended to realize an ideal society, a happy and wealthy society free from poverty and disease in which freedom and equality can be sustained. They thought that only one religion among three traditional religions(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can not solve sufficiently various problems about life and spirituality. According to their thoughts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and whole spirituality and life can be attained only through uniting three religions harmoniously. Considering social and historical influences we can notice three religions among new religions. These three are as follows : Donghak thought of Choi Jewoo(1824-1864), Jeungsan thought of Kang Ilsoon(1871-1909), and Wonbuddhism of Park Joongbin(1891-1943).

Choi Jewoo and Kang Ilsoon longed for Shinshun(taoist immortal) and made much of an ideal society, an equal and wealthy society. This means that they accepted taoist thought of respecting for life. Two thoughts did not deny confucian view respecting for moral life, or cultural value. They interested in

taoist practical theory and social thoughts neglected by confucian intellectuals. But we can say they are inclined to practical method of popular taoism, as example magical rites.

Generally speaking Park Joongbin respected for views on historical change and methods of social reformation suggested by Choi Jewoo and Kang Ilsoon. But he regarded buddhism as the main body of his teaching. He suggested the motto of cultivating spirituality, and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ve buddhist thoughts in order to attain cultivating spirituality through inner enlightenment. There are included taoist thoughts of respecting for life in his teachings. But he believed in buddhist excellent teachings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ories on ultimate reality and practical methodology. According to his opinion it is important for us to enlighten our spirituality through buddhist teachings.

Pathfinders of modern religions knew confucian limits in attaining whole life and enlightening spirituality and tried to complement these problems from buddhism and taoism. This means that they tried to united various viewpoints of three religions into one. Therefore there remains a difficult problem how we can accept various elements harmoniously without mutual conflict.

Key words : Life, spirituality, New religions, Uniting three religions.

